

20세기 전반기 중국 정치학의 제도화

이계희(충남대 교수 · 정치외교학과)

- | | |
|----------------------|---------------------|
| I. 머리말 | 3. 시난연합대학 정치학과 |
| II. 정치학 도입 경로와 성립 과정 | IV. 학회 조직과 정론 매체 활동 |
| III. 대학 정치학과와 설립과 발전 | 1. 학회의 조직과 활동 |
| 1.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 | 2. 정론 매체 활동 |
| 2. 칭화 대학 정치학과 | V. 맺음말 |

주제어

중국 정치학, 대학 정치학과, 정치학회, 정론 매체

한글 초록

이 글은 20세기 전반기 중국 정치학의 발전을 학문 제도의 확대 발전과 학문적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중국 정치학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소개와 도입, 성립과 제도화, 그리고 응용과 토착화 시도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주로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 그리고 시난연합대학의 정치학과 발전 과정, 정치학과 관련한 전국적인 학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중요한 정론(政論) 매체의 등장과 정치학의 참여를 살펴본다. 중국 정치학은 일찍이 사회과학 전문 분야로서 대학 내의 학문적 권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기의 정치적 과제와 정책에 관한 비판적·건설적 담론과 사회적 계몽에 참여하는 개혁적 역할을 했다.

I. 머리말

중국에서는 ‘청말민초’(清末民初), 즉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부터 서양 정치학이 새로운 근대적 지식으로 소개·도입되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1949년 당시 중국에는 100여 개 대학 가운데 34개교에 정치학과가 개설되어 있었고 정치학 교수가 193명, 정치학과 재학생이 1,552명에 달했다.¹⁾ 20세기 전반기에 중국에는 정치학이 이미 학문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고, 교육과 연구에서 상당한 정도와 수준의 학문적 축적이 이루어졌다.

최근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중국 정치학의 발전 과정에 관한 학사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1980년대 ‘회복’ 이후의 학문적 상황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²⁾ 20세기 전반기 서양 정치학의 도입과 초기 제도화 과정, 그리고 정치학 교육, 연구의 단절기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중국 정치학의 발전 과정에 관한 개괄적이지만 비교적 충실한 학사적 고찰을 하고 있는 자오바오쉬(趙寶煦)는 “1949년 이전에도 중국 정치학은 교육과 연구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어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나타났고 몇몇 의미 있는 저서가 출판되었으며, 또 많은 정치학 분야의 전문가 인재를 양성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³⁾

초기 중국 정치학의 발전과 학문적 상황에 대한 무시 경향의 원인은 중국 정치학 역사에서 초창기의 전통과 단절된 공백 기간이 비교적 길었

1) 王邦佐·潘世偉 主編, 『二十世紀中國社會科學: 政治學卷』(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5), p. 111.

2) 汝信 主編, 『新時期中國政治學發展20年: 1980-2000』(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王浦劬 主編, 『中國高校哲學社會科學發展報告: 1978-2008(政治學)』(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3) 趙寶煦, “中國政治學百年歷程”, 『東南學術』, 第3期(福州: 2000), pp. 39-44.

다는 점과 정권 당국이나 체제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부르주아 계급의 가짜 과학’(資產階級偽科學)으로 비판했던 과거의 정치학을 회고하고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못한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간에 20세기 전반기 중국 정치학의 존재에 대한 재조명은 오늘날 중국 정치학의 뿌리를 확인하고 잇었던 학문적 자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제의식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세기 전반기는 정치·사회적으로 전통적인 구질서의 붕괴, 외침과 전란, 혁명과 내분의 와중에서 새로운 체제와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체제 전환 또는 제도 변혁과 더불어 그러한 변혁을 추동하는 이념적 지표에 따라 정치·사회에 관한 새로운 근대적 지식체계가 모색되는 획기적인 ‘지적 전형’(知的轉型)의 시기였다. 20세기 전반기는 지성사적 관점에서 보면 서양 근대 학문의 도입과 모방, 그리고 응용 또는 ‘토착화’(本土化)를 통해서 새로운 근대적 사회과학을 정립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중국 사회과학은 학술적 이론과 사회적 실천 간의, 그리고 학문과 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치열한 논의와 성찰을 경험했다. 어떤 학자는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사회주의 정권 수립까지의 20세기 전반기 동안 중국 사회과학 발전을 평가하면서 그 기간은 지난날 중국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이룩한 성과에 버금가는 기록을 세운 ‘사회과학의 개화기’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 기간에 있었던 전통적인 중국 정치 문화의 도덕적 정당성 붕괴와 더불어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헤게모니 쇠퇴가 오히려 사회과학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⁴⁾

4) Zhengyan Fu, “The Sociology of Political Scien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David Easton, John G. Gunnell, and Luigi Franziano(ed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Science: A Comparative Survey*(New York: Routledge, 1991), p. 228.

20세기 전반기 중국 정치학의 발전에 관한 연구는 정치학사 연구 공백기의 정치학 존재를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중국의 정치사 연구, 그리고 지성사 또는 사상사 연구를 더욱 심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세기 전반기 중국 사회과학 발전과 제도화 과정은 지성사 연구의 매력 있는 대상이며, 특히 정치학의 학문적 존재 방식은 정치체제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20세기 전반기 중국 사회과학사 또는 지성사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인문사회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주체로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학문 분야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전문화·세분화를 통하여 인접 학문과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추구하는 학문적 정체성 확립 과정 및 실용성과 과학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문적 정당성 획득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치학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서구에서처럼 기존의 법학·경제학·역사학·철학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처음부터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동시에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세기 전반기 중국 정치학의 발전에 관한 연구는 ‘서양 학문의 동양 전파’(西學東漸)의 관점에서⁵⁾ 아시아 3국, 즉 한국·중국·일본의 정치학 발전 과정에 관한 국제적 비교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초창기 중국 정치학은 근대 정치학 발전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치학과 직접적인 교류가 잦았고 일찍이 국제적인 학문 조류와의 접촉이 깊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 정치학이 학문 제도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인데 20세기 초에 이미 중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대학 강단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학문의 국제적 전파나 도

5) 孫青, 『晚清之‘西政’東漸及本土回應』(上海: 世紀出版集團上海書店出版社, 2009), p. 3.

입은 수평적 교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미국의 지배적 영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중국 정치학의 발전은 서양 정치학의 동양 전래 과정의 중요한 비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20세기 전반기 중국 정치학의 발전 과정을 학문 제도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학문 제도화는 학문 제도의 확대·발전과 학문적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 제도는 학자들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정치적 참여의 활동 공간이며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확립된 공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학 정치학과와 설립과 발전, 학자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정치학회의 성립과 활동, 그리고 정론(政論) 매체의 등장과 정치학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정치학 도입 경로와 성립 과정

중국은 정치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 중국계 학자는 중국 정치학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보다 2000년 전에 손자(孫子)가 있었고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보다 800년 전에 한비자(韓非子)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⁶⁾ 그러나 정치에 관한 지식의 추구 또는 정치·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정론'(政論)과 학문 제도로서의 '정치학'을 구별해서 본다면 중국 정치학의 역사는 20세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앞서 근대 정치학이 발전했던 미국에서도 유럽의 학문적 전통을 미국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학 내 학문 제도로 정치학을 확립한 것이 19세기 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⁷⁾ 중국의 근대 정치학 출발은 비교적 빨랐으며 서양

6) Zhengyan Fu(1991), pp. 223-224.

7) 미국에서 정치학이 학문 제도로 확립된 기점은 1880년 컬럼비아 대학에 최초로

과의 시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근대적인 사회과학은 서양 학문의 동양 전래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중국에서의 정치학의 성립과 발전은 전통적인 학문과 지식체계로부터 근대적인 학문과 지식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 과정이었다는 점과 정치·사회 체제의 변혁, 그리고 새로운 근대적 고등교육 제도의 건설 과정과 병행되었다는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중국의 정치학 발전은 서양을 향한 모방과 학습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서구 지향의 학습은 초기에는 일본을 통한 간접 경로에서 시작하여 점차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경로로 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정치·사회 개혁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이론적 근거를 찾는 개혁가 또는 혁명적 지식인들에 의해서 서양의 정치제도나 정치 학설이 소개되고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주로 서적의 번역·출판과 외국학자나 교사의 초빙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어 직접적인 해외 유학생의 파견, 대학 정치학과의 신설 확대, 그리고 해외 유학 후 귀국한 학자들의 대학교수직 참여 증가 및 학회 조직 활동 증가 등의 형태로 발전했다. 중국 정치학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소개와 도입, 성립과 제도화, 그리고 응용과 토착화 시도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중국학자들의 서양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은, 특히 1895년 청일전쟁(甲午戰爭) 패배 후 더욱 높아졌는데 청나라의 개혁정책('新政'), 특히 교육개혁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일전쟁 후 중국 엘리트들은 근대화된 일본을 따라 배울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전의 양무파(洋務派)들이 추진했던 과학기술 위주의 학습보다는 정치제도나 정치·사회 이론

정치학 대학원(School of Political Science)을 설립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어서 존스홉킨스 대학, 미시간 대학, 예일 대학, 코넬 대학 등에 정치학과가 신설되었다. 이계희, 『정치학사』(서울: 을유문화사, 1998), p. 63.

학습이 중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중국의 일본 학습열을 더욱 자극했는데⁸⁾ 이러한 일본 학습은 많은 유학생의 파견과 일본인 교사 초빙의 형태로 이어졌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일본의 대학 체제를 모델로 하는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 신설이 추진되었는데 1895년 텐진(天津)에 세워진 북양학당(北洋學堂), 1896년 상하이에 세워진 남양공학(南洋公學), 1898년 베이징(北京)에 세워진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이 그 효시였다. 신설된 대학 내의 정치학 교육과 학과 체제도 일본 대학의 제도를 모방했다. 정치학의 교수 요원도 대부분 일본 유학 경험자들이었고, 교과서 역시 일본의 대학교재를 번역하거나 편집하여 사용했다.⁹⁾

중국의 초기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서양 정치학 학습은 짧은 시간 내에 서양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이점과 편리함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의 선구적인 계몽기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는 량치차오(梁啓超)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한 일본어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일본 학문이 서양에서 왔으니 직접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어를 배우려면 5~6년은 걸릴 테니 우선 며칠만 배우면 조금 읽을 수 있고 수개월만 배우면 크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본어를 배워서 빨리 유용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¹⁰⁾

당시 일본의 서양 정치학 학습도 유럽 대륙 지향과 영미(英美) 지향으

8) 王正毅, “世界知識權力結構與中國社會科學知識系譜的建構”, 『國際觀察』, 第1期 (2005), pp. 69-70; John King Fairbank and Merle Goldman, *China: A New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2), pp. 240-241.

9) 도쿄 대학(東京大學) 오노쓰카 기헤이지(小野塚喜平次)의 『政治學講義』와 『政治學大綱』을 편역한 교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孫宏云, 『中國現代政治學的展開: 清華政治學系的早期發展(一九二六至一九三七)』(北京: 三聯書店, 2005), p. 71.

10) 梁啓超, 『飲冰室主人自說』(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9), pp. 61-62.

로 이원화되었다. 즉 법학적 방법의 독일 국가학을 따르는 국립 도쿄 대학(東京大學)의 정치학 전통과 실증주의적인 영미 정치학을 따르는 사립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및 게이오 대학(慶應大學) 정치학 전통 등 2개의 학과가 형성되어 있었다.¹¹⁾ 초기 중국에 소개된 일본 정치학은 독일 국가학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화’된 정치학이었다. 중국의 근대적 사회과학이 초기에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은 일본의 번역어를 그대로 수입해서 사용한 학술 용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에는 아직 ‘정치’ 또는 ‘정치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거나 그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영어의 ‘politics’는 ‘보리디스’(波里狄思)로 음역되거나 ‘치국’(治國), ‘정사’(政事), ‘국정’(國政), ‘치술’(治術), ‘위정’(爲政) 등으로 번역되었고, ‘political science’는 ‘정리학’(政理學), ‘국정학’(國政學), ‘정치지학’(政治之學), ‘정사학’(政事學)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정치 또는 정치학이 대학의 학과 명칭이나 교과 명칭으로 확립된 것은 신해혁명 후 1912년 민국 정부의 교육부(당시 교육부장은 옌푸[嚴復]였다)가 일본의 용어에 따를 것을 공식화하면서부터였다.¹²⁾ 중국에서는 당시 일본식 번역어인 ‘경제학’, ‘사회학’, ‘철학’ 등과 같은 용어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 대신 ‘자생학’(資生學) 또는 ‘생계학’(生計學), ‘군학’(群學), ‘지학’(智學)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¹³⁾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붕괴되고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서양 근

11) Takayanagi Sakio and Tamotsu Shioya, "Japan", Uchida(ed.), *Political Science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1984), p. 22.

12) 孫青, “‘西政’與‘中學’: 西方政治學影像在中國的形成”, 『中國社會科學』, 第3期 (2005), pp. 194-197.

13) ‘자유’, ‘민주주의’, ‘국민’, ‘권력’ 등과 같은 용어도 일본식 번역어에서 정립된 것이다. 1903년 옌푸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을 번역한 제목이 『群己權界論』이었는데, 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라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王邦佐·潘世偉 主編(2005), p. 8.

대 사회과학 학습은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소개 도입 단계에서 나아가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점차 일본 유학생 대신 구미 유학생이 늘어났고 대학 제도나 학문 체제도 미국이나 유럽식 제도로 개편되었으며 교수 요원도 일본 유학 경험자들이 구미 유학 경험자들로 대체되었다.民国 수립 이후 중국 정치학이 직접적인 서양 학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물론 보다 수준 높은 학문을 추구해 가는 발전 단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지적, 정치·사회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점차 노골화되었던 일본의 침략 의도는 중국 지식인들의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혁명 후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 정치사회의 재건을 위해서 정치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19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식인들이 주도한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과 5·4운동 이후 고조된 민족주의 열풍은 중국 지식인들의 직접적인 서양 학습을 고취했던 것이다.

새로운 공화제 실시 정치 실험의 시련과 군벌(軍閥) 통치 시기의 약화된 국가 체제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문화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취를 이룩하는 기회가 되었다.¹⁴⁾ 근대적 고등교육 제도의 대학 신설과 언론의 성장, 시민사회의 등장은 사회과학의 진흥을 이룰 수 있는 학문 자유의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자유주의 학풍을 고취했다. 1920년대 이후 중국 정치학의 발전은 미국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았다. 미국 정치학과 중국의 인연은 ‘민국’ 초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수와 존스홉킨스 대학총장을 지내고 미국정치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프랭크 굿나우(Frank J. Goodnow)와 존스홉킨스 대학 정치학 교수로 9대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웨스텔 윌러비(Westel

14) John King Fairbank and Merle Goldman(1992), pp. 255-278.

W. Willoughby)가 당시 대총통이었던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정치고문으로 초빙된 일이 있었고, 위스콘신 대학 정치학 교수로 후에 역시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폴 라인시(Paul S. Reins)가 주 중국 공사로 부임했다. 특히 라인시는 미국 유학 후 귀국한 중국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중화정치학회’(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를 조직하여 정치학자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미중 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¹⁵⁾

중국 정치학 발전에 끼친 미국의 영향과 관련하여 특히 칭화 대학(清華大學)의 역할이 중요했다. 칭화 대학은 청나라 말기 미국 의회가 의화단(義和團) 사건의 배상금을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 장학 지원을 위해 쓰기로 결정함에 따라 1911년 미국 유학 준비학교인 ‘칭화 학교’로 설립되었다가 1925년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칭화 대학을 통해 1920년대 말까지 미국에 유학한 중국 학생 수가 1,268명에 달했다.¹⁶⁾ 미국 정치학의 학습에서 칭화 대학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의 하나로 1905년부터 1937년까지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국 유학생 42명 가운데 22명, 그리고 국제관계 및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국 유학생 45명 가운데 13명이 칭화 대학 출신이었다는 분석이 있다.¹⁷⁾ 1930년대 이후에는 칭화 대학 출신 미국 유학 귀국자들이 중국의 주요 대학 정치학 교수진의 골간을 이루었다.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정치학을 배웠는데 학부 과정은 위스콘신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 석사과정은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위스콘신 대학에, 그리고 박사과정은 컬럼비아 대

15) Ido Oren, “The Endu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merican(National Security) State and the State of Discipline”,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January, 2004), p. 52.

16) John King Fairbank and Merle Goldman(1992), p. 265.

17) 孫宏云(2005), p. 6.

학, 위스콘신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¹⁸⁾ 특히 위스콘신 대학 유학생이 많았던 것은 당시 주중 미국 공사였던 라인시가 동 대학 정치학 교수 출신이었던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다른 대학의 경우는 모두가 당시 미국 대학의 선도적인 명문 정치학과였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치학의 성립과 발전 과정은 정치학의 정치·사회적 역할 변화, 그리고 그러한 정치학의 학문적 존재 방식에 따라 규정되는 정치학자들의 운명과 삶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중국 국가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식인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는 제롬 그리더(Jerome B. Grieder)는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식인들의 정치사회적 존재방식의 변화 과정을 ‘정치적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 ‘정치적 아마추어’(political amateur), 그리고 ‘정치의 피해자’(victims of politics)로 규정했다.¹⁹⁾ 즉 청나라 말기 민국 초의 정치개혁가 지식인이나 혁명가 지식인들은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주의를 소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업가’였다면 191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20년대 후반 장제스(蔣介石)의 난징(南京) 국민당 정부 성립까지의 지식인들은 체제 변혁보다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계몽주의자의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아마추어였다는 것이다. 또 1930년대 이후 중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권위주의적 정권의 억압 정책과 이데올로기적 열광에 저항하면서 서구적 근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성적 직업주의’(intellectual professionalism)의 완고한 태도를 견지하려 했지만 결국 정치적 희생물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더의 관점을 근대 중국 정치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도 적용해

18) 孫宏云(2005), pp. 31-33.

19) Jerome B. Grieder, *Intellectuals and the State in Modern China: A Narrative History*(New York: Free Press, 1981).

볼 수 있다. 우선 청나라 말기 민국 초의 중국 정치학의 존재는 학문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의 정치개혁의 사상 또는 이념으로 규정할 수 있고, 학술 활동도 대학 내에서의 교육과 연구보다는 언론 매체나 정론 매체의 발행과 저술 및 출판 활동을 위주로 하는 계몽과 보급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1920년대 말까지는 중국 정치학이 대학 내의 학문 제도로 확립되고 학문 분야로서의 권위를 얻게 된 제도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이후에는 중국에서 많은 국립 또는 사립대학들이 설립되고 주요 대학에 정치학과가 독립 학과로 개설되었는데 전국적으로 1931년에는 28개교, 1936년에는 39개교에 정치학과가 신설되었다.²⁰⁾ 1930년대 이후는 근대 중국 정치학의 역사에서 이념적 분열과 정치적 수난의 시기였다. 항일전쟁의 격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이념적 대립, 그리고 국민당 내의 파벌 투쟁 등 전쟁과 혁명의 와중에서 중국 정치학은 이데올로기의 공손한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받아 타락하거나 지성적 신조를 지키는 완고한 학문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정치의 격랑에 휩쓸리는 운명을 피하기 어려웠다. 1940년대 말까지 중국 정치학은 대학의 쇠락과 학문의 정치화, 그리고 매체의 당파화에 따라 분열과 타락의 길을 걷는 상실의 시기를 경험했다. 이어진 분단국가 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중국 정치학은 실망과 은둔의 시기를 맞게 된다.

III. 대학 정치학과와 설립과 발전

중국에서 근대적인 정치학이 학문 제도로 확립되고 대학의 학과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대는 중국의 대학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시기로 서양의 고등교육 제도를 모델로 하는

20) 孫宏云(2005), p. 79.

많은 국립, 성립(省立), 사립, 그리고 교회 설립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에 정치학과의 신설도 확대되었다. 1919년에는 베이징 대학의 정치학과가 독립된 학과(系)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1923년에는 연징 대학(燕京大學)과 푸단 대학(復旦大學)에 정치학과가 신설되었으며, 1926년에는 칭화 대학, 난카이 대학(南開大學), 우한 대학(武漢大學)에 정치학과가 신설되었다. 1928년에는 국립 중앙 대학(中央大學, 난징 대학의 전신)에 정치학과가 신설되었다.

여기서는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치학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베이징 대학은 중국의 대표적인 국립대였으며 동 대학의 정치학과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칭화 대학 정치학과는 비록 설립이 늦었지만 최고의 교수진과 교과과정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학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은 텐진의 난카이 대학과 더불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쿤밍(昆明)의 시난연합대학(西南聯合大學)으로 잠시 통합되었기 때문에 세 대학의 정치학과가 잠시 통합·운영되기도 했다.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와 칭화 대학 정치학과의 발전 과정에 관해서는 이미 훌륭한 개별적인 학과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베이징 대학 설립 100주년 기념으로 편집한 샹오차오란(蕭超然) 등의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사 연구²¹⁾와 쑤홍윈(孫宏云)의 칭화 대학 정치학과 초기 발전에 관한 연구²²⁾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두 연구를 기초로 하여 두 대학의 정치학과 발전 과정을 비교·고찰하기로 한다.

두 대학 정치학과의 발전은 시차가 있지만 대체로 창설기, 성장기, 충실기, 논쟁기, 쇠퇴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창설기란 학과의 창립과 학과목의 설강이 이루어진 기간을, 성장기란 초보적 발전 단계를, 충

21) 蕭超然, 『北京大學政治學與行政管理系系史: 1898-1998』(北京: 1998).

22) 孫宏云(2005).

실기란 제도화와 교육 및 연구의 내실을 갖추는 기간을, 논쟁기란 학술과 참여의 갈등과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고조되었던 기간을, 그리고 쇠퇴기란 정치적 시련과 수난을 경험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

샤오차오란 등의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사는 학과의 출발을 대학 설립 시점과 일치시키고 있다. 즉 1898년 ‘경사대학당’이 설립될 때 학당 내에 정부관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관’(仕學館)이 정치학과의 모체라는 주장이다.²³⁾ 경사대학당은 1902년 4년제 학제로 개편되면서 ‘정법과’(政法科)를 설립하고 그 안에 법률학 ‘목’(目)과 정치학 ‘목’을 두었다가 1905년에는 목을 ‘문’(門)으로 개칭했는데 이때부터 1911년까지를 학과 창설기로 볼 수 있다. 이때까지 교수진은 대부분 일본에서 초빙된 교원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의 교과과정의 전공과목을 보면 ‘정치총의’, ‘대청회전요의’(大清會典要義), ‘중국역대법제고’, ‘동서각국법제비교’, ‘국가재정학’, ‘각국이재사’, ‘각국근세외교사’, ‘각국해육군정사’(各國海陸軍政史), ‘각국행정기관학’ 등이 개설되었다.

1912년 경사대학당이 베이징 대학으로 개명된 후부터 1926년까지는 학과 성장기로 볼 수 있다. 베이징 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정법과’는 ‘법과’로 개칭되고 법과 내에 ‘정치문’을 소속시켰다가 1919년에 ‘과’를 폐지하고 ‘문’을 ‘계’(系)로 개편하면서 ‘정치학계’가 독립된 학과로 확립되었다. 이 기간 중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는 교수진을 외국 유학 후 귀국한 학자들로 대폭 보강했는데, 일본에서 유학한 가오이한(高一涵, 明治大學 유학), 천치시우(陳啓修, 東京大學 유학), 두귀샹(杜國庠, 京都大學 유학),

23) 蕭超然(1998), p. 1.

리다자오(李大釗, 早稻田大學 유학) 등과 유럽 국가에서 유학한 조우란(周覽, 鯁生, 파리 대학 유학), 왕스제(王世杰, 런던정치경제대학 및 파리 대학 유학) 등이 그들이다.²⁴⁾ 이 기간 교수진에 구미 유학파가 충원됨에 따라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는 일본 정치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미 정치학의 지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시기 교과과정은 전공과목으로 ‘국가학’, ‘정치학사’, ‘정치사’, ‘정치지리’, ‘외교사’, ‘정당사’ 등이 개설되고, 특히 서양 정치이론과 정치제도를 소개하는 과목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 초에 리다자오에 의해서 ‘유물사관’, ‘노동자 국제운동’ 등 마르크스주의 이론 강좌가 개설되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1927년부터 시난연합대학으로 통합되는 1937년까지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내실을 갖추는 충실기로 볼 수 있다. 1927년 장쥘린(張作霖) 군벌 정부의 교육부는 대학 개편 조치를 단행하면서 베이징 지역의 9개 대학을 통합하여 ‘경사대학교’(京師大學校)를 설립하고 정치학과를 법과대에 소속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장쥘린 군벌 정부가 퇴각하고 베이징이 난징 국민정부의 관장 아래 들어감에 따라 경사대학교는 베이핑 대학(北平大學)으로 개명되었다가 1929년 다시 베이징 대학이 되었다. 1932년에는 대학 조직을 문학원, 이학원, 법학원으로 개편하면서 정치학과를 법학원 소속의 ‘계’로 설치했다. 이 기간 중에는 교수진을 미국 유학파로 대폭 보충했는데, 장중푸(張忠紱, 존스홉킨스 대학 유학), 추창웨이(邱昌渭, 컬럼비아 대학 유학) 등이 전임 교수로, 그리고 칭화 대학 정치학과 교수 푸비핑(浦薛鳳, 하버드 대학 유학), 샹오공취안(蕭公權, 코넬 대학 유학) 등이 강사로 합류했다.²⁵⁾ 이 시기의 교과과정은 중국 정치사회 관련 과목이 확대되어 ‘중국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예컨대 ‘비교정부’, ‘중국 정치사상사’, ‘중국외교사’, ‘중국행정제도연구’, ‘중국법제사’, ‘중국사회

24) 蕭超然(1998), pp. 10-14.

25) 蕭超然(1998), pp. 36-38.

사’, ‘중국정치제도사’, ‘중국재정사’ 등과 같은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 시기 정치학과 교과과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제학과, 법학과, 사학과, 그리고 철학과와 합반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과목으로 인정함으로써 인접 유관 학문에 대한 폭넓은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²⁶⁾

2. 칭화 대학 정치학과

칭화 대학은 1925년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는데, 1926년 16개 학과(系)의 하나로 정치학과를 설립했다. 물론 이전에도 칭화 대학에는 정치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고, 미국에서 초빙된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 교수 로버트 매클로리(Robert M. McElrory), 미네소타 대학교수 해럴드 스콧 퀴글리(Harold Scott Quigley), 그리고 칭화 대학 출신으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위르쉬안(余日宣) 등이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창설기 칭화 대학 정치학과는 당시 정치 정세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체제를 갖추었고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지배적인 미국 정치학의 영향을 받았다. 초창기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위르쉬안이 학과 주임을 맡았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첸단성(錢端升)이 교수로 취임했다가 1927년 난징의 중앙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과과정은 미국 대학의 교과과정을 본떴으나 상대적으로 ‘비교정부론’과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등의 각국 정부론 강좌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극동정치론’, ‘현대제국주의론’, ‘국제법’, ‘정당론’, ‘세계정치’, ‘정치이론’ 등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었다.²⁷⁾

1928년 베이징이 난징 국민정부 관할로 들어감에 따라 칭화 대학은

26) 蕭超然(1998), pp. 24-28.

27) 孫宏云(2005), pp. 94-100.

국립대학 체제로 개편되었다. 정치학과에서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석사를 받고 런던정치경제대학과 파리 대학에서 유학한 우즈춘(鳴之春)이 학과 주임으로 취임하고, 미국 유학 후 귀국한 20대의 왕화청(王化成, 시카고 대학 박사), 30대의 푸비평(하버드 대학 석사, 햄라인 대학 박사), 40대의 장시뤄(張奚若, 컬럼비아 대학 석사) 등이 교수로 임명되었다. 한편 미국 프린스턴 대학 헌법학 교수 에드워드 새뮤얼 코르윈(Edward Samuel Corwin)과 시카고 대학 정치학 교수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가 초빙되어 교수진이 크게 강화되었다. 교과과정은 정치사상, 정치제도, 그리고 국제관계 세 분야가 중심이 되었는데, 특히 ‘국제연맹’, ‘국제조직’, ‘국제공법’, ‘세계정치대세’, ‘외교학’, ‘근동의 교사’, ‘구주외교사’ 등과 같은 국제관계 및 외교 분야 과목의 비중이 컸다는 점이 특징이다. 칭화 대학 정치학과 교과과정의 특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법학 관련 과목이 주변적 과목으로 경시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일본 대학 교과과정의 영향을 받았던 베이징 대학과 대비된다.²⁸⁾

1931년 본교 출신의 푸비평이 학과 주임으로 취임하면서 칭화 대학 정치학과는 교수진과 교과과정을 더욱 충실화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샤오공취안이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1937년 통합임시대학으로 통합되기까지 칭화 대학 정치학과 교수 8명 가운데 법학 전공 교수 한 명을 제외한 7명 전원이 미국의 대학에 유학하여 정치학을 공부한 학자들로 구성되었고, 그 가운데 6명이 칭화 대학 본교 출신이었다.²⁹⁾ 이 시기 정치학과와 의 교과과정은 중국 문제의 연구를 강조하는 사회과학계 일반의 ‘토착화’(本土化) 주장 등장과 대학 당국의 ‘탈미국화’ 행정 방침에 따라 중국 관련 과목과 실용적 과목이 크게 보강되었다. 예컨대 ‘중국정치사상사’, ‘중국정치제도’, ‘중국지방정부’, ‘중

28) 孫宏云(2005), pp. 106-118.

29) 孫宏云(2005), p. 128.

국법제도’ 등과 더불어 ‘행정관리’, ‘지방정부’, ‘시정론’, ‘의회제도’ 등과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었다.³⁰⁾

칭화 대학 정치학과 내에서 정치학의 ‘중국화’를 모색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던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화들이 있다. 당시 학과 주임이었던 푸비평은 정치학의 영역을 정치현상, 정치제도, 정치관념, 정치세력, 정치인물로 구분하는 이른바 ‘정치5인소론’(政治五因素論)을 제기했는데³¹⁾ 그는 1938년 유럽 학술 여행 중 런던에 들러 해럴드 래스키(Harold Laski)를 면담하고 ‘politology’로 명명한 자신의 새로운 정치학론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³²⁾ 또 하나의 일화는 당시 칭화 대학 정치학과에서 ‘중국정치사상사’를 연구하고 강의했던 샤오공취안의 경우다. 그는 그의 당시 중국정치사상사 연구를 ‘바람 잡고 그림자 쫓는 것’(捕風捉影)같이 무모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무시하던 동료 선배 교수 장시뤄와의 애증관계를 회고하고 있는데, 당시 중국적 정치학을 탐색하던 학계 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³³⁾

3. 시난연합대학 정치학과

중일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1937년 10월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난카이 대학은 후난 성(湖南省) 창사(長沙)로 피난하여 통합임시대학이 되었다가 1938년 4월 윈난 성(雲南省) 쿤밍으로 이전하여 시난

30) 孫宏云(2005), pp. 136-140; 浦薛鳳, 『浦薛鳳回憶錄: 萬里家山一夢中』(合肥: 黃山書社, 2009), p. 157.

31) 푸비평은 1937년 칭화 대학 논문집 『社會科學』에 논문 「政治學之出路: 領域, 因素, 原理」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대한 분석은 孫宏云(2005), pp. 377-386 참조.

32) 푸비평은 그의 회고록에서 그의 용감한(?) 제안이 래스키의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지 못했음을 회상하고 있다. 浦薛鳳(2009), pp. 166-167.

33) 蕭公權, 『問學諫往錄: 蕭公權政治學漫憶』(上海: 學林出版社, 1997), pp. 114-115.

연합대학(西南聯合大學)으로 개칭했다. 이에 따라 3개 대학의 정치학과도 통합되어 법률학과, 경제학과, 상학과, 사회학과 등과 더불어 ‘법상학원’에 소속되었다. 대학 편제 내에서 정치학과와 소속은 정치학의 정향 및 교과과정의 특징과 관련되는데 국립대학이나 성립대학의 경우는 대체로 법학원에 소속되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체로 문학원에 소속되었다. 1932년 중국 대학의 28개 정치학과 소속을 보면 국립대의 8개 학과 가운데 1개 학과만 문학원에 소속되었고 나머지 7개 학과는 법학원에 소속되었으며, 성립대학의 경우는 6개 학과 가운데 4개 학과가 법학원에, 2개 학과가 문학원에 소속되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14개 정치학과 가운데 반반이 각각 법학원과 문학원에 소속되었다.³⁴⁾

전시 시난연합대학은 1937년부터 1946년까지 9년간 계속되었는데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의 최고급 학자들이 집결한 ‘중국 현대 지식인 집단의 축영’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대학과 지성, 그리고 학문정신을 대표하고 있었다.³⁵⁾ 시난연합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학풍이 지배했고 압도적으로 미국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이를테면 당시 시난연합대학 교수 가운데 90퍼센트 이상이 외국 유학자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미국 유학이 절반을 넘었다. 당시 26개 학과 주임교수 가운데 중문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주임교수가 외국 유학 경험자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20명이 미국 유학이었다.³⁶⁾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적 학풍과 사상적 관용의 분위기 때문에 교수들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이 다양했지만 당파적 이익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는 순수한 학문주의(academism)를 지향하

34) 孫宏云(2005), p. 77.

35) 謝泳(2009), 『西南聯大與中國現代知識分子』(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09).

36) 당시 시난연합대학 교수 179명 중에는 미국 유학자가 97명, 유럽 대륙 유학자가 38명, 영국 유학자가 18명, 일본 유학자가 3명 포함되었다. 謝泳(2009), p. 9.

는 경향이 뚜렷했다.

시난연합대학으로 통합된 정치학과 초기에는 칭화 대학 교수 장시뤄가 학과 주임을 맡아 베이징 대학 교수로 복귀한 첸팡성과 더불어 공동으로 학과 발전을 이끌었다. 교수진은 미국 유학자들로 보강됐는데 사오원커(邵循恪, 시카고 대학 유학), 왕간위(王韞愚, 하버드 대학 유학), 추이수친(崔書琴, 하버드 대학 유학), 왕화청(王化成, 시카고 대학 유학), 뤼룽지(羅隆基, 컬럼비아 대학 유학) 등이 그들이었다. 이 시기 지식인 사회 내의 학문주의와 참여주의 간의 갈등은 정치학계 내에도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논쟁을 제기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시난연합대학 정치학과에서는 순수한 학문주의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교육 방향도 관료 양성보다는 학자 양성에 더 중점을 두었다.³⁷⁾ 교과과정은 큰 변화 없이 정치사상, 정치제도, 그리고 국제관계 및 외교 세 분야로 정착되었다.³⁸⁾ 특기할 것은 이 시기 시난연합대학 정치학과 내에 ‘행정연구실’이 설치되어 행정학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연구실은 첸팡성 교수가 1936년 난징의 중앙 대학에서 행정연구자료실을 창설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민국정제사’(民國政制史) 연구를 추

37) 蕭超然(2005), pp. 40-41.

38) 정치학 범위와 분야를 어떻게 규정하고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학문의 정체성 또는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푸비평의 ‘정치5인소론’과 더불어 정치학의 범위를 ‘정부’, ‘정사(政事)(여론·정당·계급을 포함하는), ‘국제관계’로 구분하는 첸팡성의 ‘정치학 3분야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체계를 시도하며 ‘계급’, ‘국가’, ‘정부’, ‘정당’, ‘혁명’ 등으로 구분하는 덩추민(鄧初民)의 ‘5론 정치학 체계’ 등이 그 예이다. 錢端升, “政治學”, 錢端升, 『錢端升學術論著自選集』(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1), p. 447-453; 鄧初民, 『新政治學大綱』(生活書店, 1940). 중국 학자들은 덩추민을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로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덩추민의 저서를 소개하는 글로, 鳴漢全, “鄧初民〈新政治學大綱〉(1940)的學術貢獻(1)-紀念鄧初民誕辰120周年”, 『政治學研究』, 第3期(2009), 참조.

진하다가 베이징 대학으로 부임하면서 옮겨온 것을 계승한 것이다.³⁹⁾

전쟁과 혁명의 와중에서 대학과 학문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6년 시난연합대학은 해체되고 각자 본래의 대학으로 복귀했다. 정치학자들은 이어진 국공내전과 국가분단의 시기에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경험했다. 일부는 대륙에 남았고 일부는 타이완으로, 또 다른 일부는 미국 등 외국으로 학문적·인간적 도생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베이징 대학 정치학과와 경우 1946년 베이징 복귀 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 과목을 보강했는데 ‘변증법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마르크스레닌주의 명저선독’, ‘신민주주의 국가론’, ‘사회주의국가’, ‘소련정부’, ‘동남구정치경제현상’, ‘전후세계정치경제정황’, ‘국제정치문제’ 등의 강좌가 새로 개설되었다. 동시에 ‘베이징시정연구’, ‘중국지방행정’, ‘행정조직 및 관리’ 등의 행정학 강좌가 보강된 것도 특징이었다.⁴⁰⁾

IV. 학회 조직과 정론 매체 활동

학회는 학자들이나 전문가 지식인들이 학술적인 활동을 조직화하거나 또는 사회문화적 계몽과 정책적 제안을 통하여 정치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제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나 학술지, 동인 간행물과 같은 전문 매체 또한 학자들이나 전문가 지식인들에게 공공의 네트워크 수단을 제공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여기서는 20세기 전반기 중국에 등장했던 정치학과 관련한 전국적인 학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중요한 정론(政論) 매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39) 蕭超然(2005), pp. 56-59.

40) 蕭超然(2005), pp. 48-51.

1. 학회의 조직과 활동

이 기간에 중국에서는 두 개의 전국적인 정치학회가 조직되어 활동했다. 1915년 베이징에서 조직된 ‘중화정치학회’(中華政治學會,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과 1932년 난징에서 조직된 ‘중국정치학회’(中國政治學會)가 그것이다.

‘중화정치학회’⁴¹⁾는 당시 주중 미국공사였던 라인시의 제의와 후원으로 미국정치학회를 본떠 조직되었다. 1915년 창립총회에는 65명이 참가했는데 당시 중국 정부 외교총장이었던 루정샹(陸征祥)이 회장으로, 미국공사 라인시가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⁴²⁾ 이 학회는 회원 자격의 제한이 비교적 덜 엄격하여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은 물론 외교관, 출판인, 작가, 관리, 은행원 등도 참여할 수 있었고, 1931년까지는 회원이 316명으로 늘어났다. 이 학회는 학술 연구를 장려하는 국제학술교류센터의 신설, 정치학 도서관의 건립, 그리고 학술지 발간 등 3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1930년대 후반까지 20여 년 간 중국 사회과학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자들과 전문가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친목의 장소로 기여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베이징의 ‘정치학도서관’은 많은 외국 전공서적을 구비하여 학자들에게 연구 편의를 제공했다. 1916년부터는 영문으로 발간되는 학회보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를 계간으로

41) 비공식적으로는 ‘베이핑정치학회’(北平政治學會)로 불린다. 孫宏云(2005), p. 274.

42) 라인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학회 조직에 미국의 정치학자 굿나우, 윌러비 등과 더불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일본 학자들이 동참하여 협조했다고 적고 있다. Paul Samuel Reinsch, *An American Diplomat in China*(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22), pp. 152-154.

창간하여 1941년까지 총 24권을 발행했다.⁴³⁾

‘중국정치학회’는 1932년 9월 난징에서 중진 정치학자 45명이 발기로 순수한 학술단체의 기치를 걸고 설립되었다. 학회는 회장을 두지 않고 창립을 주도한 당시 ‘중영문화교육기금회’(中英文化教育基金會)의 총간사를 맡고 있던 캉리우(抗立武)가 학회 총간사로 활동했는데 주요 발기인으로는 192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한 정치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 학회는 회원 자격을 대학 정치학 교수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 특징이었다. 중국정치학회의 조직은 중국 정치학의 제도화·전문화·직업화가 진전된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치학회는 순수한 학술단체를 표방했지만 현실 정치문제나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과 제안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관여될 수밖에 없었고 일부 회원들이 직접 정부에 참여하기도 했다.⁴⁴⁾ 중국정치학회는 1936년과 1937년 난징에서, 그리고 1943년 충칭(重慶)에서 세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각 대회에서 토론된 주제와 정책 제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가. 1936년 6월 제1차 연례 학술대회 토론 주제

- 외교책략안(일반 문제, 중국 외교의 출로, 중일 친선 문제, 중국 외교정책의 근본 문제)
- 이치개진안(吏治改進黨)(공무원의 등급과 정원, 공무원 고시 전형과 훈련, 공무원 대우 및 신분 보장)
- 정치학과 교과과정 표준안(교과과정 활성화 방안)

나. 1937년 제2차 연례 학술대회 토론 주제

43) Paul Samuel Reinsch(1922), pp. 278-283.

44) Paul Samuel Reinsch(1922), p. 296.

45) 魏鏞, “中國政治學會之成立及其初期學術活動: 紀念中國政治學會成立六十周年”, 『政治學報』, 第十四期(1993). <http://capstaipei.org.tw/article-background.htm>(검색일: 20091231).

- 헌법 초안
- 지방행정제도
- 비상 시기 국민 정치교육안
- 외교책략안

다. 1943년 제3차 연례 학술대회 토론 주제

- 정치건설기구안(헌정 실시 문제)
- 세계평화 재건안(전쟁 수습과 신국체조직, 신경제질서)

한편 정치학 관련 학회 활동과 관련하여 1944년 여름 충칭에서 10여 명의 대학교수 주도로 순수 학술단체를 지향하는 ‘중국행정학회’가 창립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⁴⁶⁾

2. 정론 매체 활동

신문이나 평론, 동인 잡지 등과 같은 정론 매체는 지식인들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또는 학연·지연에 따라 조직화하는 공공 네트워크 수단이다. 주요 대학과 우수한 학자 전문가들이 집중해 있는 근대화된 대도시 베이징과 상하이는 그러한 정론 매체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⁴⁷⁾ 지식을 전파하고 공공여론을 형성하며 정치사회적 과제를 제시하는 정론 매체 활동은 근대적 지식인들의 중요한 정치·사회 참여 방식의 하나였다. 당시 중국의 정치학자들은 그러한 정론 매체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신문화 운동 시기를 대표하는 베이징의 『신청년』(新青年)에 적극적으로

46) 王邦佐·潘世偉 主編(2005), p. 457.

47) 許紀霖 等, 『近代中國知識分子的公共交往(1895-1944)』(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pp. 26-27.

로 글을 발표했던 가오이한과 리다자오, 상하이의 『개조』(改造)를 주도하던 량치차오와 주요 필자였던 장권리(張君勱) 등은 모두 정치학자였다.⁴⁸⁾ 1924년 베이징 대학의 정치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교수들의 참여 아래 주간지로 창간된 『현대평론』(現代評論)에서는 정치학 교수였던 조우란과 첸팡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⁴⁹⁾ 1932년 베이징 대학 철학과 교수 후스(胡適) 주도로 창간된 『독립평론』(獨立評論)은 1937년 중단될 때까지 244호를 발행하며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연징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징 자유주의 지식인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여기서도 정치학자들은 정치 외교 문제에 관한 평론 집필자로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잡지의 발행 기간 중 10편 이상의 글을 집필한 23명 가운데 정치학자가 7명을 차지했는데 이들이 집필한 글은 수록된 전체 722편의 글 가운데 18.2퍼센트에 해당한다.⁵⁰⁾ 당시 정치학자들이 집필했던 정론의 주제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 즉 정치체제 문제와 중앙정부의 개혁,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개혁 등과 같은 정치제도 개혁 문제였다.

1939년 주간으로 창간되어 1941년까지 2년 4개월간 지속되었던 『금일평론』(今日評論)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독립적 시사논단이였다. 당시 시난연합대학 정치학 교수였던 첸팡성이 잡지의 주편을 담당했고 정치학 교수 다수가 집필자로 참여했다. 이 시기에는 시난연합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학술 문예 동인지와 각 정당 정파들을 대변하는 간행물이 나타났다. 정론 매체들은 지식인들이 중국의 국가적 진로, 대일전쟁 수행 정책, 그리고 민주적인 헌정제도의 확립 문제에 관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대중을 계몽하기도 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48) 許紀霖 等(2008), pp. 95-96, 148.

49) 許紀霖 等(2008), p. 186.

50) 許紀霖 等(2008), p. 302.

정책을 건의하는 정치사회 참여의 수단이었다. 1940년대 이후에는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전시체제 강화 조치에 따라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정부 비판이 적극화되고 ‘좌경화’되었다.⁵¹⁾ 『금일평론』에는 삼민주의(三民主義)의 ‘민주’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당의 우경화 정책과 장제스 정권의 전체주의화를 비판하는 논조의 글들이 발표되었다. 정치학 교수 뤼룽지가 국민당 독재를 비판하고 ‘연합정부’와 ‘다당정치’(多黨政治) 실현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다가 충칭 정부의 압력으로 대학 당국에서 교수직을 해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드디어 정부의 정간 압력을 받아 『금일평론』은 폐간되었다. 그러나 『당대평론』(當代評論)으로 제호를 바꾸어 계속 발행되었다.⁵²⁾

필화사건으로 시난연합대학 정치학과 교수직에서 해임된 뤼룽지는 ‘민주동맹’(民主同盟)을 결성하여 정치활동을 적극화하고 1944년 『민주주간』(民主週刊)을 창간하여 장제스 국민당 정부 비판에 앞장섰다.⁵³⁾ 이 잡지는 1946년까지 71호를 발행했다. 이 밖에 1940년대 종전 이전에 발행되었던 정론 매체로는 『전국책』(戰國策), 『자유논단』(自由論壇), 『시대평론』(時代評論), 『독립주보』(獨立週報) 등이 있었다.

일본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국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정론 매체의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전 직후 상하이에서 창간된 『관찰』(觀察)과 『시와 문』(時與文)이었다. 두 정론지는 비록 상하이에서 발행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주도한 매체였다. 두 정론지의 창간을 주도하고 편집 책임을 맡았던 『관찰』의 추안핑(儲安平)과 『시와 문』의

51) 존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는 이러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이반 현상 원인을 장제스 정권의 신뢰 추락으로 진단했다. John King Fairbank, *Chinabound: A Fifty Year Memoir*(New York: Harper & Row, 1982), pp. 241-264.

52) 許紀霖 等(2008), pp. 393-394.

53) 許紀霖 等(2008), pp. 398-401.

청보홍(程博洪)은 모두 푸단 대학 정치학과 교수였다. 추안핑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에 유학하여 래스키 교수에게 사사한 정치학자였고 청보홍은 시난연합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정치학자였다. 두 정론지를 중심으로 당시 진보적인 자유주의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었지만 두 정론지는 성격과 지식인 네트워크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관찰』 집단은 교육 배경으로 볼 때 학문적 훈련 과정을 밟은 구미 유학파들이 중심이 되었고 베이징의 국립대(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등) 교수가 주축이었으며 다수가 무당파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헌정민주주의’와 영국 노동당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모든 형식의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 정치노선을 추구했다. 이에 비해서 『시와 문』 집단은 교육 배경을 볼 때 일부 일본 유학파를 제외하고는 해외 유학 경험이 없고 정규 대학 교육 경험보다는 단기 연수과정과 전문 분야를 자학 자습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상하이의 사립대(푸단 대학 등) 교수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다수가 민주당파(소수의 공산당원도 포함)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민주정치 실현을 주장했지만 동구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공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정치노선을 추구했다.⁵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공내전이 격화되면서 자유주의 지식인 사회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시기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를 제공한 대표적인 정론지는 『독립시론』(獨立時論)과 『신로』(新路)였다. 『독립시론』은 1947년 5월 후스의 주도로 창간된 베이징 대학 교수 중심의(동인 45명 가운데 베이징 대학 교수가 28명이었다) 자유주의 지식인 논단이었었는데 반공적 성향의 보수적 정치학자 추이수친과 장포취안(張佛泉) 등이 동인으로 참여했다.⁵⁵⁾ 『신로』는 칭화 대학 사회학과 우징차오

54) 許紀霖 等(2008), p. 446.

55) 그러나 당시 베이징 대학 정치학 교수였던 첸팡성과 조우빙린(周炳琳)은 후스와의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 때문에 『독립시론』에 참여하지

(鳴景超)와 더불어 베이징 대학 정치학 교수 첸팡성이 주도하여 1948년 5월에 창간되어 연말까지 24회 발행되었는데 주로 칭화 대학 교수들이 동인으로 참여했다.⁵⁶⁾ 『신로』에는 진보적인 민주당과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독립시론』과 『신로』는 다같이 구미 유학파가 중심이 된 자유주의 지식인 논단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의 교풍과 학문적 전통을 각각 반영하고 있었고 정치적 성향과 대정부 관계의 태도에서도 대조가 되었다.⁵⁷⁾ 정론 매체의 등장과 소멸은 대학 지식인 사회의 해체와 교수의 '정치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신학문 또는 새로운 근대적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정치학이 어떻게 성립되고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주로 대학 내 학문 제도로서의 정치학, 그리고 정론 매체를 통한 정치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정치학이 제도화를 지향해 온 과정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중국 정치학의 존재를 확인했다. 중국 정치학은 일찍이 사회과학 전문 분야로서의 학문적 권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기의 정치적 과제와 정책에 관한 비판적·건설적 담론과 사회적 계몽에 참여하는 개혁적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중국 정치학은 특히 미국 정치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자유주의 정치학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정치이론을 모색하려는 마르크스주의적 정치학의 시도가

않았다. 許紀霖 等(2008), pp. 458-459.

56) 첸팡성은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에 방문학자로 있다가 1948년 11월 귀국했다. 동인지 창간 실무에는 그를 대리하여 베이징 대학 정치학 교수 러우방옌(樓邦彦)이 참가했다. 許紀霖 等(2008), p. 461.

57) 許紀霖 等(2008), p. 470-472.

나타나기도 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⁵⁸⁾

국가체제 분단으로 중국 사회과학자들은 정치적·학문적 이산을 강요 받았다. 한 분석 연구에 의하면 분단 당시 저명한 학자들의 집결처였던 ‘국립중앙연구원’ 제1기 원사(院士) 81명 가운데 대륙에 잔류한 사람은 60명(74퍼센트), 타이완으로 간 사람은 9명(11퍼센트), 미국으로 간 사람은 12명(15퍼센트)이었다.⁵⁹⁾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행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그 후 중국 정치학자들은 그러한 선택에 따라 정치사회적 격변기의 곡절 많은 정치적·학문적 인생을 경험했다. ‘신중국’ 성립 후 사회주의 정권은 새로운 지식의 제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급혁명의 일환으로 대학교육 체제의 개편을 단행했다. 1952년 대학 제도를 소련식으로 개편하면서 정치학과는 폐지되고 정치학 과목은 폐지되거나 다른 유사한 과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정치학자들은 자리를 잃었다. 베이징 대학, 연징 대학, 푸단 대학, 난징 대학의 정치학과는 각각 ‘베이징정법학원’(北京政法學院), ‘화동정법학원’(華東政法學院), ‘시난정법학원’(西南政法學院)으로 통합되고, 중산 대학(中山大學), 후난 대학(湖南大學), 광시 대학(廣西大學) 정치학과는 ‘중난정법학원’(中南政法學院)으로 통합되어 사법·행정의 간부 양성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정치학자들은 ‘과학사회주의’ 또는 ‘국가와 법’ 과목을 교육·연구하도록 조정되었다.⁶⁰⁾

중국 대륙에서 학문 제도로서의 정치학은 잠시 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정치학자는 수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남았고 1980년대 부활의 씨앗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30년간 정치학의 연구와 교육이 중단된 공백기를 거쳐 1980년대 초에 와서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다시 ‘회복’ 또는

58) 王邦佐·潘世偉 主編(2005), pp. 103-108.

59) 于風政, 『改造: 1949-1957年的知識分子』(鄭州: 河南人民出版社, 2001), p. 7.

60) 王邦佐·潘世偉 主編(2005), pp. 265-266.

‘재건’되었다.⁶¹⁾

참고문헌

- 이계희, 『정치학사』(서울: 을유문화사, 1998),
- 謝詠, 『西南聯大與中國現代知識分子』(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09).
- 蕭公權, 『問學誼往錄: 蕭公權政治學漫憶』(上海: 學林出版社, 1997).
- 蕭超然, 『北京大學政治學與行政管理系系史: 1898-1998』(北京: 1998).
- 孫宏云, 『中國現代政治學的展開: 清華政治學系的早期發展(一九二六至一九三七)』(北京: 三聯書店, 2005).
- 孫青, “‘西政’與‘中學’: 西方政治學‘影像’在中國的形成”, 『中國社會科學』, 第3期(2005).
- 孫青, 『晚清之‘西政’東漸及本土回應』(上海: 世紀出版集團上海書店出版社, 2009).
- 梁啟超, 『飲水室主人自說』(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9).
- 汝信 主編, 『新時期中國政治學發展20年: 1980-2000』(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鳴漢全, “鄧初民〈新政治學大綱〉(1940)的學術貢獻(1)-紀念鄧初民誕辰120周年”, 『政治學研究』, 第3期(2009).
- 王邦佐·潘世偉 主編, 『二十世紀中國社會科學: 政治學卷』(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5).
- 王正毅, “世界知識權力結構與中國社會科學知識系譜的建構”, 『國際觀察』, 第1期(2005).
- 王浦劬 主編, 『中國高校哲學社會科學發展報告: 1978-2008(政治學)』(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 于風政, 『改造: 1949-1957年的知識分子』(鄭州: 河南人民出版社, 2001).
- 魏鏞, “中國政治學會之成立及其初期學術活動: 紀念中國政治學會成立六十周年”, 『政治學報』, 第十四期(1993) <http://capstaipci.org.tw/article-background.htm>(검색일: 20091231).

61) Zhao Baoxu, “The Revival of Political Science in China”,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17, no. 4(1984), pp. 745-757.

- 錢端升, “政治學”, 錢端升, 『錢端升學術論著自選集』(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1).
- 趙寶煦, “中國政治學百年歷程”, 『東南學術』, 第3期(福州: 2000).
- 浦薛鳳, 『浦薛鳳回憶錄: 萬里家山一夢中』(合肥: 黃山書社, 2009).
- 許紀霖 等, 『近代中國知識分子的公共交往(1895-1944)』(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 Zhao, Baoxu, “The Revival of Political Science in China”,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17, no. 4(1984).
- Fairbank, John King, *Chinabound: A Fifty Year Memoir*(New York: Harper & Row, 1982).
- Fairbank, John King and Merle Goldman, *China: A New Histor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Fu, Zhengyan, “The Sociology of Political Scien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David Easton, John G. Gunnell, and Luigi Franziano(ed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Science: A Comparative Survey*(New York: Routledge, 1991).
- Grieder, Jerome B., *Intellectuals and the State in Modern China: A Narrative History*(New York: Free Press, 1981).
- Oren, Ido, “The Endu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merican(National Security) State and the State of Discipline”,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January, 2004).
- Reinsch, Paul Samuel Reinsch, *An American Diplomat in China*(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22).
- Sakio, Takayanagi and Tamotsu Shioya, “Japan”, Uchida(ed.), *Political Science in Asia and the Pacific*(Bangkok: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1984).

Institutionalization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in the First Half of Twentieth Century

Ke Hee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s:

This essay i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science as a academic discipline in China in the first half of twentieth century, especially focu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olitical science in China has evolved through three broad phases, those are 'introduction phase', 'institutionalization phase', and 'accommodation phase'. In this essay, mainly be investigate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y departments, national scholarly associations, and professional journals on political affairs. Chinese political science had been making notable advances and attained legitimate authority as an independent field of social sciences until the government of PRC withdrew political science from university academic program on the pretext of higher education reform in 1952.

Keywords:

Chinese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Department, Association, Journal